

한국언론학회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

저널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 뉴스생산관행과 전문직 정체성의 재구성

2026년 5월 8일 (금) 16:10-17:30 (4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세미나실 3

주최  한국언론학회

후원 

저널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 뉴스생산관행과 전문직 정체성의 재구성

일시

2026년 5월 8일 (금) 16:10-17:30 (4부)

장소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세미나실 3

주최

 한국언론학회

후원

 MBC

프로그램

사회

조항제(부산대)

발제

김춘식(한국외대), 홍주현(국민대)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기자의 전문직 정체성: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토론

김선호(한국언론진흥재단), 박아란(고려대), 박진우(건국대), 배진아(국립공주대)

기획취지

한국언론학회 2026 봄철정기학술대회 MBC 특별세션

저널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 뉴스생산관행과 전문직 정체성의 재구성

다종다양한 매체와 채널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저널리즘, 포털 저널리즘, 유튜브 저널리즘, OTT 저널리즘, AI 저널리즘 등 새로운 저널리즘 유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저널리즘 유형에 대한 평가는 양가적입니다. 한 편에는 우리 사회의 소통과 통합과 상생을 구현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저널리즘의 역할 수행 및 공론장의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편에는 특정 가치와 지향, 세대와 젠더 등 세분화된 뉴스 이용자를 타깃팅하면서 진영 논리와 정치 팬덤의 확장 및 공론장의 파편화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양가적 평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좋은 저널리즘’을 구성하는 원칙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시청각미디어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뉴스란 무엇인가?!”를 묻는 근원적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객관보도’나 ‘공정성’ 등 전통적 뉴스 가치의 재해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감정 공론장(emotional public sphere) 또는 정동 공론장(affect public sphere)에 관한 연구도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이성과 감정’, ‘객관과 주관’이 교차하는 저널리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 내고, 이를 기반으로 저널리즘 규범과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 뉴스생산관행과 조직문화, 그리고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재해석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공론장’의 재건을 위해 ‘좋은 저널리즘’은 필요불가결한 조건이자 토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변화하는 저널리즘 환경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저널리즘 원칙과 기준, 규범적 가치는 무엇이며,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훑아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좋은 저널리즘과 건강한 공론장의 재건을 지향하는 전문직 정체성을 취재 제작 보도 현장의 뉴스생산관행과 조직문화 속에서 일상적 실천으로 체화해 가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발제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기자의 전문직 정체성: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김춘식(한국외대)

홍주현(국민대)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기자의 전문직 정체성: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 춘 식

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홍 주 현

초록

이 연구는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정치저널리즘 실천에 작용하는 구조적 압력과 감정노동의 양상, 그리고 그것이 정치뉴스 생산과 정치저널리즘의 민주주의 기능 수행에 미치는 함의를 구명하였다. 주요 전국 단위 선거를 취재한 정치부 기자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주제 분석을 통해 정치저널리즘 실천이 플랫폼 반응성, 정당 및 정치인의 외부 압력, 조직 내부 게이트키퍼, 취재원과 관계 유지가 중첩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자들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감정을 억제·조절하며 관계를 관리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하였고, 이는 객관성·공정성·균형성과 같은 전문직 규범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노동은 기사 수위 조절, 자기검열, 관계 편향을 매개함으로써 정치저널리즘의 감시 기능과 민주주의적 역할을 제약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정치저널리즘의 문제를 기술 변화나 노동 강도 증가의 차원에 한정하기보다 구조적 압력, 감정노동, 규범 수행, 민주주의 기능이 교차하는 실천 구조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정치저널리즘, 감정노동, 뉴스 생산 압력, 정치부 기자, 민주주의 기능, 주제 분석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정치커뮤니케이션의 구조 자체가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를 의미한다(Poell, Nieborg & van Dijck, 2019).¹⁾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치정보의 노출과 유통 방식, 그리고 시민의 정치 참여와 반응 방식이 대체로 플랫폼의 기술적 구조, 알고리즘, 수익 논리, 서비스 정책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언론은 정치정보의 가시성과 확산성 그리고 공적 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인, 정당, 인플루언서, 유튜버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Guo, Lin & Li, 2026; Klüser, 2025; Liu, 2024; Yang et al., 2025).

최근 연구는 플랫폼 의존 확대를 단순한 배포 채널의 변화가 아니라 뉴스 생산의 형식적·내용적 규범이 플랫폼 논리에 맞추어 변형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Steensen et al., 2026).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시각 중심 플랫폼에서 시각성이 뉴스를 축약·배열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끌도록 조직하는 생산 원리로 작동하여 정치뉴스는 개인화, 감정성, 서사적 어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Kallio & Mäenpää, 2025). 플랫폼화는 뉴스 생산 이후의 유통 권력까지 언론사 외부로 이동시킨다. 플랫폼화된 뉴스 생태계에서 뉴스의 공적 영향력은 생산 이후의 유통과 가시화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과정은 플랫폼의 추천 시스템, 노출 규칙, 데이터 접근 조건, 약관과 정책 같은 외부 규칙에 의해 조직된다. 즉 소셜 플랫폼이 주요 통로이자 일종의 수문장으로 기능하면서 언론은 플랫폼 안에서 뉴스 노출과 확산 방식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 플랫폼 거버넌스와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정치뉴스 노출·확산·억제를 언론사 내부의 편집 판단이 아닌 언론사 외부의 규칙에 종속시키면서 저널리즘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적 기능을 위협한다(Wihbey, 2024).

다른 한편으로 플랫폼화는 전문 정치저널리즘의 민주주의 기능의 필요성을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플랫폼 환경에서 사실 검증은 민주주의 보호에 필수적이지만, 정치저널리즘은 빠른 주목 경쟁에 대응하면서 느리고 비용이 큰 검증 작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긴장에 놓이게 된다(European Parliament, 2025). 이러한 긴장은 속도, 가시성 경쟁, 성과지표, 형식 적응, 적대적 피드백이 중첩된 생산 압력으로 구체화되며, 기자들에게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과 같은 전문직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정서적 차원의 자기통제를 요구한다. 이 지점에서 정치저널리즘 실천은 감정노동의 문제와 결부된다.

이런 맥락에서 기자들은 동정, 연민, 두려움, 피로와 같은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객관성과 전문성을 수행하려 한다. 기자들의 감정과 정동이 사실 판단과 중립성·신뢰성의 수행을 매개하는 셈이다(Kotišová, 2025). 다시 말해,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기자의 인식론적 권위는 사실을 아는 능력만으로 유지될 수 없고, 불확실성과 적대감 속에서도 냉정함, 신중함, 도덕적 정당성을 수행하는 정동적 역량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정치저널리즘 실천에 작용하는 압력을 분석하려면 노동 조건과 규범적 요구를 분리하는 대신 양자가 결합하여 기자와 언론사에 특정한 감정 관리와 정동적 자기통제를 요구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기자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압력과 감정노동의 수행 양상을 분석하고, 이것이 정치뉴스 생산과 정치저널리즘의 민주주의적 기능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구명하고자 한다.

1) 여기서 플랫폼은 단순한 게시 공간이 아니라 정치정보의 생산·유통·소비, 정치적 상호작용, 그리고 공적 주의를 배분을 구조화하는 사회기술적 인프라이다(Poell, Nieborg & van Dijck, 2019; van Dijck, Poell & de Waal, 2018).

2. 문헌연구

1) 플랫폼화와 정치저널리즘 실천의 재구성

매스미디어 중심의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언론은 정치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매개하는 중심적이고 제도화된 행위자였다(Papathanassopoulos & Giannouli, 2025). 그러나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언론은 더 이상 정치 정보의 독점적 중개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변화는 Chadwick(2013)이 말한 하이브리드 미디어 시스템, 즉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논리가 상호작용하는 체계 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플랫폼화 논의는 디지털 플랫폼의 인프라, 경제적 과정, 거버넌스 체계가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재편한다고 본다(Poell et al., 2019). 정치저널리즘 역시 이와 같은 재편 과정에서 예외일 수 없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클릭, 반응, 공유, 체류시간, 추천 가능성 등 플랫폼의 성과지표와 배치 규칙에 의해 매개되는 플랫폼 논리(platform logic)가 정치뉴스의 생산 및 유통 전략 전반에 개입하며, 이로 인해 정치저널리즘 실천을 둘러싼 조건이 재구성되고 있다(Kristensen, 2023; Poell et al., 2019; Steensen et al., 2025; van Dijck & Poell, 2013).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리즘은 뉴스 판단과 편집 자율성에 영향을 미쳐 개인화, 감정성 그리고 서사적 어필에 대한 의존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즉, 전통적인 경성 뉴스 중심 보도에서 이탈하여 플랫폼 유통 뉴스가 더 부드럽고 가볍고 반응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형되는 ‘소셜미디어 뉴스 연성화’(social news softening) 현상이 도드라진다(Klein, Magin, Riedl, Udris & Stark, 2023).

정치뉴스가 플랫폼에 맞추어 형식과 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이유는, 뉴스가 생산된 이후 노출 및 확산을 언론사 내부의 편집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Schneider & Stark, 2025). 플랫폼화된 뉴스 생태계에서 뉴스의 공적 영향력은 생산 이후의 유통과 가시화에 의해 의존적이며, 이 과정은 플랫폼의 추천 시스템, 노출 규칙, 데이터 접근 조건, 약관과 정책 같은 외부 규칙에 의해 조직된다. 즉, 플랫폼화된 뉴스 생태계에서는 소셜 플랫폼이 뉴스와 공적 지식의 주요 통로이자 사실상의 ‘기능적 게이트키퍼’(functional gatekeeper)(p. 115)로 작동하며, 뉴스 품질과 공적 기여는 생산 단계가 아니라 플랫폼이 설계한 유통 질서 속에서 결정된다(Wihbey, 2024). 따라서 플랫폼 거버넌스와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정치뉴스의 노출·확산·억제를 언론사 외부의 규칙에 종속시키며, 결과적으로 저널리즘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적 기능이 위협받게 된다.

요컨대 플랫폼화는 정치저널리즘 실천의 조건 자체를 재구성한다. 플랫폼 반응성, 가시성 경쟁, 외부 규칙에 대한 의존의 확대는 기사 기획, 취재, 발제, 표현, 편집의 전 과정에서 새로운 판단과 조정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기능하며, 기자들은 이러한 압력 속에서 취재원 관계를 관리하고 전문직 규범을 지키기 위해 감정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플랫폼화된 정치저널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 압력과 감정노동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정치저널리즘에서의 감정노동

사회학자 Hochschild(1983)는 그녀의 기념비적인 저서 <The Managed Heart>에서 감정노동을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 표현 규칙에 맞추어 감정을 유발·억제·관리하는 노동”(1983, p. 7)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녀는 노동자가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을 표면연기(surface acting)(실제 감정은 그대로 두고 표정이나 말투 같은 외적 표현만 조정하는 방식)와 심층연기(deep acting)(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에 부합하도록 내적 감정 상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식)의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후 Grandey(2000)는 기존 감정노동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조절(emotional regulation)의 관점에서 재정리하면서 Hochschild의 표면연기와 심층연기를 각각 반응 중심 조절(response-focused regulation)과 선행 중심 조절(antecedent-focused regulation) 방식으로 재개념화하였다.

이들의 관점을 취하면 저널리즘에서의 감정노동은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보도 가치와 전문직 규범에 부합하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는 직업적 자기관리 실천으로 정의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감정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동정, 연민, 죄책감 같은 충동을 자제하며(Hopper & Huxford, 2015), 이러한 감정 관리는 뉴스 산업의 변화와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Pantti & Wahl-Jorgensen, 2021).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허위 정치정보의 생산과 유통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저널리즘은 사실 검증을 통해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규범적 요구를 떠안게 됐다(Alverne et al., 2024). 실제로 유럽의회 조사자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팩트체크가 민주주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확인과 허위 주장 검증이 플랫폼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한다(European Parliament, 2025). 그런데 이러한 기능은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며, 플랫폼화는 사실검증 기능 자체에도 새로운 부담을 부과한다.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에 따르면 팩트체크 저널리스트의 78%가 괴롭힘을 경험했고, 3분의 1이 넘는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겪었으며, 동시에 예산 불안정과 스포츠 영상 중심의 포맷 변화에도 적응해야 했다(IFCN, 2025). 이는 정치저널리즘이 신속한 주목 경쟁과 비용이 큰 검증 작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긴장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기술한 논의를 종합하면,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정치저널리즘 실천에 작용하는 압력요인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 첫째,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플랫폼 의존적 유통 구조, 성과지표 중심의 수익 모델, 사실검증의 비용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산노동 측면에서는 속도 경쟁, 상시적 모니터링, 플랫폼별 재가공 노동, 번아웃과 같은 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전문직 규범과 인식론적 권위의 측면에서는 객관성, 정확성, 투명성, 정정 책임 사이의 긴장을 다룰 수 있다. 넷째, 안전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온라인 괴롭힘, 적대적 피드백, 특히 여성 기자에게 집중되는 디지털 폭력, 그리고 이러한 위협이 공론장 유지와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적 기능을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UNESCO(2025)는 2025년 여성 기자의 75%가 온라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정치저널리즘 실천이 기술적·경제적 압력뿐 아니라 정서적·안전상의 압력에 의해서도 형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컨대, 플랫폼화된 정치저널리즘은 단순히 새로운 유통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를 넘어, 가시성 경쟁, 검증 책임, 전문직 규범, 안전 위협, 민주주의적 책무가 중첩된 생산 체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네 가지 압력요인 가운데 특히 둘째와 셋째, 즉 생산노동 차원의 압력과 전문직 규범 및 인식론적 권위 차원의 압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시간·성과 압박’으로, 후자는 ‘규범·정당성 압박’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의 개념과 연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플랫폼화된 정치저널리즘 실천을 시간·성과 압박과 규범·정당성 압박이 감정노동을 매개로 교차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기자들이 경험하는 감정노동은 적대적 댓글, 온라인 괴롭힘, 정치적 공격, 허위정보 대응의 피로 속에서도 공격적으로는 신뢰할 만하고 통제된 저널리즘 주체로 보이기 위해 감정의 표현과 억제를 관리하는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Kotišová, 2025). 실제로 기자 괴롭힘 연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격이 심리적 고통과 ‘내면화된 위축 효과(internal chilling effect)’를 낳는다고 보고하고(Kim & Shin, 2022), 여성 방송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괴롭힘 대응이 직무의 일부로 감정노동화된다고 설명한다(Miller & Lewis, 2022). 또한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분석한 연구는 기자들이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료적·연결적 실천(connective practices)에 의존한다고 지적한다(Kantola & Harju, 2023).

최근 저널리즘 연구는 감정과 정동을 기자의 지식 형성, 판단, 신뢰 획득과 연결된 ‘정동적 인식론

(affective epistemology)’의 문제로 본다(Kotišová, 2025).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기자의 인식론적 권위는 사실 판단 능력뿐 아니라 감정 조절과 도덕적 정당성을 수행하는 정동적 역량을 통해서도 구성된다. 따라서 플랫폼 환경에서의 정치저널리즘 실천 압력은 속도·성과·가시성 경쟁과 같은 노동 조건과 객관성·정확성·신뢰성 같은 규범적 요구가 결합하여 기자와 언론사에 특정한 감정 관리와 정동적 자기통제를 요구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감정노동은 단지 기자 개인의 정서적 부담이 아니라, 비판의 강도, 취재 지속 가능성, 자기검열 가능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권력 감시와 공론장 형성이라는 민주주의적 기능의 수행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정치저널리즘 실천에 작용하는 구조적 압력과 감정노동의 수행 양상을 분석하고, 이것이 정치저널리즘의 민주주의적 기능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기자들이 경험하는 플랫폼 기반 및 조직 차원의 생산 압력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이러한 압력 속에서 기자와 언론사는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과 같은 전문직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가?

[연구문제 3] 이러한 감정노동은 정치뉴스 생산과 정치저널리즘의 민주주의적 기능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이 연구는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정치저널리즘 실천에 참여하는 기자들이 경험하는 플랫폼 기반 및 조직 차원의 생산 압력, 감정노동, 그리고 그것이 정치뉴스 생산과 민주주의 기능 인식에 미치는 함의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정치부 기자를 연구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025년 6월 3일 실시된 한국의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직접 취재한 정치부 기자를 포함하여, 역대 대통령선거나 주요 전국 단위 선거 취재 경험이 있는 정치부 기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을 통해 종이신문과 방송매체에 종사하는 정치부 기자 10명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눈덩이 표집 방식은 기자 집단과 같은 전문직 공동체 내부에서 신뢰 기반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언론사 간 상이한 조직 문화와 보도 관행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Hermanowicz, 2002). 매체 유형별·직위별·출입처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이는 방송기자 다섯 명(지상파 2명, 종편 2명, 보도전문채널 1명)과 신문기자 다섯 명(중앙일간지 3명, 지역일간지 2명)이었다(부록 A 참조).

2) 반구조화 면담 설계와 자료수집 절차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Creswell & Poth, 2018). 반구조화 인터뷰는 공통된 질문 틀을 유지하면서도 참여자의 경험과 해석에 따라 질문의 순서와 깊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질문지는 크게 다섯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플랫폼화된 정치 취재 환경에서의 생산 압력과 경쟁 구조, 둘째, 보도 과정에서 경험하는 조직적 요구와 내부 협상, 셋째, 사실검증, 공정성, 객관성 같은 전문직 규범의 수행, 넷째, 온라인 반응과 적대적 피드백, 허위정보 대응 과정에서의 감정 조절 및 감정노

동 경험, 다섯째, 정치부 기자로서의 정체성 인식과 민주주의적 역할 인식이다. 이러한 구성은 정치저널리즘 실천을 구조적 압력, 규범적 요구, 감정적 자기조절이 중첩된 실천으로 이해하는 문제의식에 근거한다(Poell et al., 2019; Nieborg & Poell, 2018; Pantti & Wahl-Jorgensen, 2021; Kotišová, 2025).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4월 10일 사이에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인당 인터뷰 시간은 평균 60분 내외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함께 인터뷰를 주관하였고, 연구자 1은 주 질문과 흐름 관리를 담당하고 연구자 2는 보충 질문과 현장 메모를 담당함으로써 자료의 밀도와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동일한 질문 틀을 유지하면서도 참여자의 서사와 경험을 풍부하게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전에 마련한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며(부록 C 참조), 인터뷰 도중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추가 질문과 탐색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자들이 경험한 구체적 사례, 예컨대 기사 주제 선정 과정, 팩트체크 수행 경험, 온라인 괴롭힘 대응, 플랫폼별 뉴스 재가공 전략, 조직 내 역할 갈등 등을 심층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이후 전사 과정을 거쳐 텍스트 자료로 변환하였다. 전사본은 개인, 언론사, 취재원 등 연구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익명화하여 처리하였다.

3) 자료분석

면담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과정을 녹음하였으며, 음성 인식(Speech-to-Text)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이를 텍스트로 변환하였다. 연구자는 자동 전사된 녹취록과 음성 파일을 일일이 대조하며 오타자 및 비문 등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은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에서는 Bazeley와 Jackson(2013)의 오픈 코딩(open coding)과 축 코딩(axial coding) 절차를 참조하여 코드를 반복적으로 검토, 통합, 확정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인터뷰 전사본과 메타데이터를 정리하여 참여자의 매체 유형, 직위, 출입처, 정치부 경력, 선거 취재 경험을 기본 분석 맥락으로 구축하였다. 둘째, 연구문제에 대응하는 초기 분석 틀을 마련하기 위해 2개의 인터뷰 자료(J01, J02)를 대상으로 파일럿 코딩을 실시하였고, 의미 있는 발화를 중심으로 1차 코드를 도출하고 이를 연구문제 1(생산 압력), 연구문제 2(감정노동 수행), 연구문제 3(기사 생산 및 민주주의 기능에 대한 함의)을 기준으로 묶었다. 셋째, 추가 사례(J03, J04)를 투입하고 동일한 코딩 틀을 적용하여 초기 코드의 적합성과 안정성을 점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코드를 유지·수정·통합·추가하면서 2차 범주를 재구성하였다. 넷째, J01부터 J04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코드, 2차 범주, 이론 개념, 연구문제의 연결을 포함하는 예비 코드북을 작성하였고, 이를 J05부터 J10까지의 나머지 인터뷰 내용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범주와 사례 특수적인 하위코드를 구분하였다. 다섯째, 전체 10개 인터뷰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코드북을 확정하였다. 최종 코드북은 연구문제와의 대응 관계에 따라 세 개의 상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범주 A는 플랫폼 성과지표 및 가시성 압력, 댓글·악플·온라인 반응 압력, 정당 및 지지자에 의한 외부 압력, 조직 내부의 데스크·논조·위계 압력 등 플랫폼 기반 조직 차원의 생산 압력을 포괄한다. 범주 B는 취재원에 대한 감정 억제와 관계 유지, 객관성·공정성 수행을 위한 자기 조절, 외부 공격에 대한 정서적 완충과 위축 관리 등 기자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감정노동 수행 방식을 포괄한다. 그리고 범주 C는 관계 편향에 따른 기사 생산 왜곡 가능성, 자기 검열 및 위축 효과, 민주주의 기능과 회사 이익의 충돌 등 감정노동이 정치뉴스 생산 및 민주주의 기능에 미치는 함의를 포괄한다(부록 B 참조).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최종 코드북을 토대로 매체 유형별, 직위별, 출입처별 비교를 통해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인터뷰 내용 분석 결과,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정치저널리즘 실천은 단일한 노동 경험 이 아니라 플랫폼 기반의 가시성 경쟁, 조직 내부의 위계와 조정, 취재원과의 관계 유지, 그리고 전문직 규범 수행이 중첩된 실천행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저널리즘 실천 이 더 이상 기자 개인의 판단이나 취재 역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반응과 댓글, 정당 및 취재원의 압력, 데스크와 발제 구조, 그리고 취재원과의 지속적인 관계 관리 속에서 수행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조건은 기자들에게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과 같은 전문직 규범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와 동시에,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하며 취재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크게 네 가지 수준으로 정리된다. 첫째, 모든 참여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치저널리즘 실천 과정에서의 생산 압력이다. 둘째, 정치부 기자들이 정치뉴스 생산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감정노동의 기본 패턴이다. 셋째, 이러한 경험이 신문과 방송, 중앙과 지역, 저연차와 중간관리자, 청와대·여당·야당 출입처 등 상이한 취재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가의 문제이다. 넷째, 앞서 살핀 세 가지 측면의 결과가 기사 생산 방식, 자기검열, 그리고 언론의 민주주의 기능에 대한 인식에 던지는 함의에 관한 내용이다.

1) 정치뉴스 생산의 압력 구조

인터뷰 분석 결과, 정치뉴스 생산은 단일한 취재 노동이 아니라 플랫폼 반응, 취재원과의 권력관계, 조직 내부 게이트키퍼, 그리고 정치경제적 이해가 중첩되는 실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기사 노출, 댓글, 조회 수, 온라인 확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동시에(J01, J02, J07, J09, J10), 정당과 정치인, 보좌진, 지지자들로부터 기사 내용과 질문 방식, 매체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간접적 압력을 경험하고 있었다(J02, J05, J06, J08, J10). 여기에 반장·부장·데스크와의 조율, 발제와 기사 방향 설정, 형식적 균형 요구와 같은 조직 내부 압력이 더해지고(J01, J04, J05, J07, J10), 지역신문의 경우 회사의 이해와 지역 정치인의 관계까지 생산 조건의 일부로 작동하였다(J03, J09). 결과적으로 기사 작성은 기자 개인의 자율적 판단이라기보다, 플랫폼의 반응 구조, 취재원과의 관계, 조직 내부의 조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수행되는 집합적 실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압력 구조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댓글, 조회 수, 온라인 제목, 독자 피드백 등 플랫폼 반응과 성과지표 관련 압력이다(J01, J02, J07, J10). 한 청와대 출입 기자가 “온라인 편집이라는 건 ... 제목을 고치는데 거기에서 시세차익이라는 단어를 달아서 올린 거예요”(J07)라고 말했는데, 이는 기사 작성 이후에 온라인 담당자의 플랫폼 친화적 편집으로 기사의 의미가 바뀌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라인 편집자가 아닌 정치부 기자가 감당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정당과 정치인의 직접적 압력이다. 이는 질문 패싱, 기사 논조에 대한 항의, 지지자 동원을 통한 공격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J02, J05, J06, J08, J09). 예를 들어 “○○○는 바로 패스라는 거예요”(J08)라는 진술은 특정 매체가 질문 기회를 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조직 내부의 위계와 조정 구조이다. 데스크와 반장, 부장, 국장 등 조직 내부의 위계적 구조가 기사 방향과 표현 수위를 조정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J01, J04, J05, J07, J10). 한 기자의 “정치부 기사의 핵심은 탑다운으로 정하는 거예요. 방향을 예를 들면 올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을 비판해야 된다? 여당을 비판해야 된다고 정하고, 기사를 쓰죠”(J04)라는 진술에서 조직 내부의 위계 및 조정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넷째, 지역신문의 경우 정치경제적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작용하는 요인이었다. 한 지역신문 기자는 “막 쓸 수는 없어요. ... 기사로 조절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며(J03), 지역 정치인과의 관계가 정보 접근뿐 아니라 예산과 회사 운영 조건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플랫폼화된 정치저널리즘 생산은 반응성, 관계성, 조직성, 정치경제성이 중첩되는 중층적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부 기자들의 기사 생산은 복수의 구조적 요구를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실천 과정이다.

2) 감정노동의 수행 방식

인터뷰 결과 정부 기자들이 겪는 감정노동은 단순한 정서 관리가 아니라, 취재 관계를 유지하고 전문적 규범을 수행하기 위한 일상적 실천이었다. 참여자들은 정치인과 보좌진, 그리고 당직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불쾌감, 억울함, 짜증, 무력감, 피로감을 경험하지만(J01, J05, J07, J08, J10), 그러한 감정을 외부로 직접 표출하는 대신 억제하거나 조절한다고 응답했다(J02, J06, J09, J10). 비판 기사를 쓴 뒤 재차 같은 취재원을 만나야 하는 상황(J01, J05, J09),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정치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접촉해야 하는 상황(J06, J08, J10), 그리고 기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제목이나 편집 문제로 항의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J07, J09)에서 이러한 자기통제가 특히 두드러졌다. 한 신문 기자가 “기자들은 맞장구쳐주는 걸 당연하다고 느끼거든요”라고 말한 대목(J06)은, 정부 기자들이 감정노동을 예외적 부담이 아니라 직업의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감정노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취재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감정을 억제하고 공손함이나 친화성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J01, J05, J06, J08, J10). “인간적으로 교류도 없는 분들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 저 사람은 좀 말도 섞기 싫은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건 어렵죠”라고 하면서 “그냥 일이라고 하는 거죠”라고 덧붙였다(J08). 둘째, 객관성·공정성·균형성과 같은 전문적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기사 표현과 감정 개입 수준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식이다(J01, J02, J06, J08, J10). 이러한 방식은 “열 받지만 불쾌하지만 내 마음을 좀 가라앉혔다든지 그다음에 또 기사에서 이렇게 좀 제대로 한번 쓰고 조지고 싶은데 … 객관성, 중립성 지켜야 하니까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라는 발언(J06)에 잘 나타난다. 셋째, 동료와 조직을 통해 정서적 부담을 분산하거나 완충하는 방식이다(J01, J02, J05, J06, J10). 예컨대 한 방송 기자는 “스트레스 해소는 동료들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 우리들끼리 약간 조롱을 섞어서 그런 밈 같은 것들을 단톡방에서 공유하면서 풀어요”(J01)라고 말해, 감정적 부담이 동료 집단 안에서 비공식적으로 해소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기자의 “보통 상대방이 기분 안 좋은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반장이 얘기를 하자고 데려 나가요. …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반장이 조금 그거를 좀 예쁘게 다듬어서 위에다가 또 말하죠”(J06)라는 발언은 조직 내부에 완충 과정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감정노동이 기자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정부 취재시스템에 내재한 요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 취재가 취재원과의 반복적 접촉과 관계 축적을 전제로 이루어지다 보니 기자는 취재원과 지나치게 멀어져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가까워져서도 안 되는 미세한 거리 조절을 지속해야만 한다(J03, J04, J08, J09, J10). 한 고연차 방송 기자가 “그거는 기본이예요. … 그걸 못하면 취재가 안 되는 거죠”라고 말한 대목(J05)은, 감정 조절이 정부 취재에 부가되는 부담이 아니라 취재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임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감정노동은 정치저널리즘 실천을 외부에서 교란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매체 유형별·직위별·출입처별 차이

앞서 기술한 두 가지 공통 경험이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정치저널리즘

실천에 작용하는 압력과 감정노동은 매체 유형, 기자의 직위, 그리고 주요 출입처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구체화되었다.

먼저, 매체 유형 간 차이가 명확했다. 기자들은 맥락 설명과 해석 기사, 취재원과의 오랜 관계, 그리고 기사 수위 조절을 상대적으로 더 자주 강조하였다(J02, J06, J07, J09). 이들에게 정부 기사는 단순한 ‘워딩’ 전달이 아니라 취재원의 발언을 어떤 맥락 속에 배치하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였으며(J02, J07), 관계가 기사 서술 방식과 비판 강도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다(J06, J09). 한 신문 기자가 “맥락을 충분히 설명해주면 국민이 그런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잖아요”라고 말한 대목(J06)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반면 방송 기자들은 기사 내용 자체보다도 아이템 배열, 시간 배분, 자막, 화면 구성, 여야 균형과 같은 형식적 요소를 더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J01, J05, J08, J10). 특히 방송 정부 기자들은 발언 시간과 아이템 수를 맞추는 기계적 균형 수행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J01, J10). “색깔이 너무 드러난 옷을 입지 않는다는지. 근데 이진 진짜 신경 쓰거든요”라는 발화(J01)는, 방송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이 기사 문장뿐 아니라 기자의 외형과 시각적 형식에까지 확장되어 수행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직위 간에도 차이가 뚜렷했다. 말진이나 저연차 기자들은 현장과 브리핑, 전화 취재, 취재원과의 최초 접촉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어 정치인이나 보좌진의 적대감, 질문 패싱, 공개 질책, 차가운 반응을 가장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했다(J01, J03, J05, J08). 이들의 경우 감정노동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취재원에게도 계속 다가가야 하고, 황당함과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J01, J05, J08). 한 저연차 방송 기자가 패싱 경험을 두고 “처음에는 그냥 황당하다. 어이없다. 짜질하다”라고 말한 대목(J08)은 취재 경험이 적은 기자가 감당해야 하는 정서적 부담을 잘 보여준다. 반면 부반장, 차장, 고참 기자와 같은 중간급은 말진처럼 직접적인 적대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기보다, 후배가 채집한 워딩과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발제 방향과 기사 갈래를 조율하며 담담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J02, J06, J10). 이러한 역할은 “발제문 듣고 워딩 보면서 갈래를 정하고, 맥락을 보죠. 근데 또 부반장에게 전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서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해요.”(J10)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팀장이나 데스크, 부장급으로 갈수록 감정노동은 개인적 감정의 억제보다는 외부 항의와 내부 갈등을 흡수하고 기사 방향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J04, J05, J07, J09). 즉, 직위가 높아질수록 감정노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접촉의 정서적 부담에서 구조 관리의 정서적 부담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출입처별로도 감당해야 하는 감정노동의 수준이 달랐다. 청와대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기사 한 건의 파장과 관계 악화에 따른 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J07, J09). 기사 제목이나 표현 하나가 취재 환경 전체를 흔들 수 있어 늘 긴장하면서 취재에 임하는 이들에게는 취재원과의 관계 복원과 설명 작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감정노동이었다(J07). 실제로 한 청와대 출입 기자는 “청와대와의 관계는 언론사한테 엄청 중요하거든요”라고 말하였다(J07). 야당 출입 기자들은 상대적으로 질문 패싱, 적대적 태도, 냉대, 매체 성향에 대한 공개적 불신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였으며(J02, J05, J08, J10), 이 경우 취재원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감정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접촉을 계속 이어가야만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J05, J08, J10). 한편 지역지 기자들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높은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지만(J03, J09), 동시에 지역 의원과 언론사가 지역 발전과 예산, 현안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했다(J09). “동반자적인 파트너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 의원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니까요”라는 발화(J09)는, 지역에서 관계 유지가 단순한 정보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대표성과 회사의 이해가 결합된 실천임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정치저널리즘 실천 압력과 감정노동은 모든 기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이지만, 그 구체적 형태는 매우 달랐다. 신문은 맥락과 해석, 장기 관계의 문제를 더 강하게 드러냈고, 방송은 형식적 균형과 시각적 편집 압력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말진은 직접 접촉의 부담을, 중간급은 조정의 부담을, 팀장과 데스크는 구조 관리의 부담을 더 강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청와대 출입은 정무적 민감성과 관계 복

원의 필요성이, 야당 출입은 적대감과 패싱의 문제가, 지역지 출입은 동반자 의식과 자기검열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졌다. 따라서 정치부 기자의 감정노동은 단일한 유형의 경험이라기보다, 매체 구조와 조직 위계, 출입처의 권력관계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다층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4) 기사 생산과 민주주의 기능에 대한 함의

구조적 압력과 감정노동은 단지 취재 과정의 정서적 부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기사 생산 방식과 민주주의적 역할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취재원과 관계 유지, 조직 내부의 테스킹과 발제 구조, 온라인 반응과 외부 압력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기사를 작성한다고 설명하였다(J01, J02, J06, J08, J09, J10).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은 객관성이나 공정성과 같은 규범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조절로 나타나기도 했지만(J01, J06, J10),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 강도와 표현 수위, 해명 반영 정도, 발제 여부를 조정하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J06, J08, J09, J10). 다시 말해, 감정노동은 단지 규범을 지키기 위한 내면적 노력을 넘어서 정치뉴스가 어떤 방식과 어떤 논조로 생산되는가를 매개하는 실질적 조건이었다.

첫째, 감정노동은 기사 생산을 보다 방어적이고 조정된 방향으로 이끌었다. 참여자들은 친한 취재원이나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정치인을 비판할 때 기사 수위를 낮추거나, 해명을 더 충분히 반영하거나, 기사화 이전에 미리 맥락을 설명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J06, J08, J09, J10). “오늘 막 이렇게 친하게 저녁에 술도 먹고 했는데 내일 아침에 나와 있는 기사가 너무 비판적이면은 힘들죠. 나는 내일 또 거기 가서 만나야 하고”라는 진술(J06)은, 친밀한 관계와 비판적 기사 작성 사이의 긴장이 실제 기사 수위 조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방송 기자들은 여야 분량과 아이템 수, 발언 시간, 자막 구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형식적 균형을 수행하였고(J01, J10), 신문기자들은 기사 서술과 해석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관계와 규범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었다(J02, J06, J09). 결국 기자들이 경험하는 감정노동이 정치뉴스를 단순한 사실 전달의 결과물이 아니라 항의와 관계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된 결과물로 만드는 셈이다.

둘째, 감정노동은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를 낳는 조건으로도 작동한다. 기사에 대한 항의, 공개적 패싱, 실명 비판, 정치인의 불쾌한 반응, 지지자들의 공격이 반복될 경우, 직접적인 수정 요구가 없어도 다음 기사에서 표현을 조심하게 되거나 발제 자체를 접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J02, J07, J08, J09, J10). 특히 지역신문의 경우 특정 기사로 인해 정부 예산이나 지역 현안 해결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발적으로 문제 제기를 보류하기도 했다(J09). 지역신문 기자의 “정부 여당에서 옳다구나 하고 예산 삭감할 거 같으면, 그 기사 못 쓰죠”(J09)라는 발화는 자기검열이 단지 개인적 위축이 아니라, 지역 정치와 정부 예산, 언론사의 위치가 얽힌 구조적 판단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는 지역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 청와대 출입 기자는 기사 제목 문제로 취재원과 갈등이 생긴 뒤 “취재원과 틀어지면 엄청 불편하죠”라고 말하며, 이후 순방 현장에서도 관계 악화의 부담을 계속 감당해야 했다(J07)고 설명했다.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 모두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가 관계 유지와 취재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실천적 판단 속에서 내면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이러한 과정은 정치저널리즘의 민주주의적 기능에도 복합적인 함의를 갖는다. 한편으로 감정노동은 권력 감시와 비판, 허위정보 검증, 공론장 형성이라는 저널리즘의 민주주의적 기능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동한다. 관계 유지 압박, 회사의 이해관계, 온라인 편집과 플랫폼 반응, 취재원과의 장기적 상호의존성은 기자로 하여금 비판을 유예하거나 수위를 낮추게 만들 수 있으며(J03, J07, J09, J10), 이는 정치저널리즘의 감시자 역할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참여자들 다수는 여전히 자신들의 기사가 문제 해결로 이어질 때, 정책 자료를 통해 공적 책임을 환기할 때, 국정감사나 단독 보도를 통해 변화가

발생할 때 강한 효능감과 보람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J01, J02, J09, J10). 예컨대 한 기자는 “이 기사 덕분에 문제가 해결됐네요”(J09)라고 말하며, 기자로서의 가장 큰 보람을 공적 문제 해결의 순간에서 찾고 있었다. 이는 감정노동이 민주주의 기능을 소모시키는 조건인 동시에, 그 기능이 왜 여전히 필요한지를 더 강하게 자각하게 만드는 조건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결과는 감정노동이 정치저널리즘의 규범을 단순히 침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규범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변인이라는 점도 보여준다. 기자들은 취재원과 지나치게 가까워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멀어져서도 안 되는 상태에서 관계를 조율해야 했고(J03, J08, J10), 이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능력은 기사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조건으로 작동하였다(J01, J05, J06). 한 참여자가 감정 조절을 두고 “그거는 기본이예요. … 그걸 못하면 취재가 안 되는 거죠”라고 말한 대목(J05)은, 감정노동이 저널리즘의 객관성·공정성과 대립하는 외부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저널리즘 규범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감정노동이 관계 유지와 조직적 이해, 플랫폼 반응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경우, 정치저널리즘의 민주주의적 기능은 방어적 균형 수행과 자기검열의 실천으로 축소될 수 있다(J07, J09, J10). 결국 이 연구는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정치저널리즘의 핵심 문제가 단순한 기술 변화나 노동 강도의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압력, 감정노동, 규범 수행, 민주주의 기능이 긴밀히 얽혀 있는 생산 체제 자체에 있음을 보여준다.

5. 요약 및 논의

이 연구의 결과는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정치저널리즘 실천을 단순히 새로운 유통 채널에 적응하는 과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첫째, 인터뷰 자료에서 드러났듯이, 플랫폼 환경은 정치뉴스 생산의 외부 조건이 아니라 기사 기획, 취재, 발제, 표현, 편집, 유통 기능성의 판단을 사전에 구조화하는 생산 체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플랫폼화를 디지털 플랫폼의 인프라, 경제적 과정, 거버넌스 체계가 다양한 사회 영역을 재조직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기존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정치저널리즘의 경우 이러한 플랫폼화가 플랫폼 반응성과 조직 내부 위계, 취재원과의 상호의존 관계를 한층 더 밀착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정치저널리즘의 플랫폼화는 생산 이후의 유통 조건 변화가 아니라, 생산 단계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조적 재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저널리즘 실천에 작용하는 압력은 시간·성과 압박과 규범·정당성 압박이 교차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속도, 반응성, 플랫폼 적응, 댓글과 독자 반응, 취재원과의 관계 유지 같은 요구 속에서도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균형성과 같은 전문직 규범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감정노동은 단순한 정서 관리가 아니라, 구조적 압력과 규범적 요구를 매개하는 핵심 기제로 기능한다. 즉, 감정노동은 “불편함을 참는 일”이라기보다, 취재원과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사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공적으로는 신뢰할 만하고 통제된 저널리즘 주체로 보이도록 만드는 수행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감정노동을 정치저널리즘의 주변적 요소가 아니라, 생산 압력과 전문직 규범을 연결하는 핵심 조건으로 위치시킨다.

셋째, 정치저널리즘의 감정노동은 모든 기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 유형, 직위, 출입처에 따라 다르게 배분되고 수행된다. 이는 기존의 저널리즘 감정노동 연구가 주로 취재원과의 관계, 괴롭힘 대응, 혹은 특정 사건 보도의 정서적 부담에 주목해온 데 비해, 감정노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신문과 방송의 차이는 기사 생산의 기본 단위와 형식 규

범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말진과 탐장-태스크의 차이는 감정노동의 부담이 “직접 접촉”에서 “조정과 흡수”로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났다. 또한 청와대, 여당, 야당, 그리고 지역신문 사례에서 발견되는 차이는 출입처가 제공하는 권력 접근성, 취재 난이도, 관계 유지 비용의 차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치저널리즘의 감정노동은 개별 기자의 심리나 성향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뉴스룸의 조직 구조와 출입처 체계, 매체 유형이 결합된 조건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넷째, 감정노동은 기사 생산과 민주주의 기능에 대해 양가적 효과를 갖는다. 한편으로 감정노동은 관계 유지와 항의 회피, 취재 지속 가능성을 위해 비판 강도와 표현 수위를 조절하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 자기 검열과 발제 포기로 이어지면서 정치저널리즘의 감시 기능을 제약한다. 특히 지역신문 사례에서 관찰되는 회사 이해와 지역 정치의 결합, 그리고 일부 방송과 중앙지 사례에서 드러난 취재원 상실에 대한 우려는 감정노동이 민주주의적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참여자들은 여전히 문제 해결, 정책 반영, 자료 발굴, 공적 책임 환기에서 기자로서의 강한 보람과 효능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플랫폼화된 환경이 정치저널리즘의 자율성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정치저널리즘의 민주주의적 기능의 필요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저널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감정이 배제된 상태로 보는 기존의 직관적 이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기자들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하고 분산시키는 과정을 통해 객관성과 균형성을 수행하고 있었다. 즉, 정치저널리즘의 전문직 규범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관리와 통제를 통해 수행된다. 이 점에서 감정노동은 정치저널리즘의 규범을 침식하는 외적 조건이 아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규범을 불완전하게나마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감정노동이 플랫폼 반응, 관계 유지, 조직 이해, 회사 이익에 과도하게 종속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은 민주주의적 비판 기능보다 방어적 균형 수행과 자기검열의 논리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결국 이 연구의 핵심 함의는 플랫폼화된 정치저널리즘의 문제를 기술 변화나 노동 강도 증가의 차원을 넘어서 구조적 압력, 감정노동, 규범 수행, 그리고 민주주의 기능이 교차하는 생산 체계 전체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6. 결론

이 연구는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정치저널리즘 실천이 어떠한 구조적 압력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어떠한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정치뉴스 생산과 민주주의 기능 인식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탐색하였다. 10명의 정치부 기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분석 결과, 플랫폼화된 정치저널리즘 실천은 더 이상 기자 개인의 취재 역량이나 판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다층적 실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플랫폼 반응성과 가시성 경쟁, 정당과 정치인의 외부 압력, 조직 내부의 게이트키퍼, 그리고 취재원과의 관계 유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 속에서 기사를 생산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기자들로 하여금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과 같은 전문직 규범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와 동시에,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하며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이 연구의 분석은 세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정치저널리즘의 플랫폼화는 단순히 뉴스 유통 채널의 변화가 아니라, 기사 기획과 취재, 발제, 표현, 편집, 유통 가능성의 판단을 사전에 구조화하는 생산 체계의 변화임을 보여준다. 둘째, 정치저널리즘의 감정노동은 단순히 기술 변화에 따라 추가되는 부담이 아니라 구조적 압력과 전문직 규범을 매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감정노동은 기사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면서도 동시에 비판 강도 조절, 자기검열, 관계 편향, 방어적 균형 수행을

통해 정치저널리즘의 민주주의적 기능을 제약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정치저널리즘의 핵심 문제는 기술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플랫폼 반응, 조직 위계, 취재원과의 상호의존성, 감정노동, 규범 수행, 그리고 민주주의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생산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연구는 정치저널리즘이 여전히 민주주의적으로 중요한 실천임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기사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거나, 정책이 수정되거나, 공적 책임이 환기되는 순간에 강한 효능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플랫폼화된 환경이 정치저널리즘의 자율성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러한 저널리즘의 필요성과 규범적 정당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저널리즘의 미래를 논의할 때에는 단순히 허위정보 대응이나 플랫폼 적용의 차원을 넘어, 기자들이 구조적 압력 속에서도 감정노동을 통해 어떻게 전문직 규범을 수행하고 민주주의적 역할을 방어하는가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연구참여자가 10명의 정치부 기자로 제한되어 있어, 모든 매체 유형과 출입처 경험을 포괄적으로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이 연구는 기자들의 자기보고에 기반한 질적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기사 내용이나 뉴스룸 내부 문서, 플랫폼 데이터와 결합한 분석까지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셋째, 플랫폼화된 정치저널리즘의 생산 압력과 감정노동은 시기와 정권, 선거 국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시기와 매체, 그리고 기사 텍스트 분석이나 뉴스룸 관찰 자료를 결합한 다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정치저널리즘 실천을 구조적 압력, 감정노동, 규범 수행, 민주주의 기능의 교차 속에서 파악해야 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나름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Alverne, C. M., Arguedas, A. R., Banerjee, S., Toff, B., Fletcher, R., & Nielsen, R. K. (2024). The electoral misinformation nexus: How news consumption, platform use, and trust in news influence belief in electoral misinform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88, special issue, 681-707.
- Bazeley, P., & Jackson, K. (2013). *Qualitative Data Analysis with NVivo* (4th ed.). CA,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Chadwick, A. (2013). *The hybrid media system: Politics and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W. and Poth, C.N. (201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 CA,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European Parliament (2025). Fact-checking and content moderation.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25/769493/EPRS_ATA\(2025\)769493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25/769493/EPRS_ATA(2025)769493_EN.pdf)
- Guo, Y., Lin, C., & Li, Y. (2026). Does trending across platforms popularize political topics? A cross-platform spillover framework of public atten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20. <https://doi.org/10.1080/1369118X.2026.2633216>
- Grandey, A. A. (2000). Emotion regulation in the workplace: A new way to conceptualize emotional labo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95-110.
- Hermanowicz, J. C. (2002). The great interview: 25 strategies for studying people in bed. *Qualitative Sociology*, 25 (4), 479-499.
- Hochschild, A. R. (1983).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pper, K. M., & Huxford, J. E. (2015). Gathering emotion: Examining newspaper journalists' engagement in emotional labor. *Journal of Media Practice*, 16 (1), 25-41. <https://doi.org/10.1080/14682753.2015.1015799>
-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2025). State of the fact-checkers report 2024. <https://www.poynter.org/wp-content/uploads/2025/03/2.Facts-Report-March-2025-.pdf>
- Kallio, S., & Mäenpää, J. (2025). Visuality as an affordance on Instagram news production. *Digital Journalism*. <https://doi.org/10.1080/21670811.2025.2462558>
- Kantola, A., & Harju, A. A. (2023). Tackling the emotional toll together: How journalists address harassment with connective practices. *Journalism*, 24 (3), 494-512. <https://doi.org/10.1177/14648849211055293>
- Kim, C., & Shin, W. (2022). Harassment of journalists and its aftermath: Anti-press violence, psychological suffering, and an internal chilling effects. *Digital Journalism*, 13(2), 232-248. <https://doi.org/10.1080/21670811.2022.2034027>
- Klein, M., Magin, M., Riedl, A. A., Udriș, L., & Stark, B. (2023). From news softening to social news softening: Comparing patterns of political news coverage on different (social) media channels in Germany and Switzerland. *Digital Journalism*, 13 (6), 1089-1111. <https://doi.org/10.1080/21670811.2023.2278044>
- Klüser, K. J. (2025). From Entertainment to Engagement? Entertainment Figures' Political Messaging and Audience Responses in the Digital Age. *Political Communication*, 42(6), 968-991. <https://doi.org/10.1080/10584609.2025.2498526>
- Kotišová, J. (2025). Journalism and embodied knowledge: Conceptualizing affective epistemology and epistemic affordances of emotions and affect across news beats. *Journalism Studies*. <https://doi.org/10.1080/1461670X.2025.2495726>
- Kristensen, L. M. (2023). Audience metrics: Operationalizing news value for the digital newsroom. *Journalism Practice*. <https://doi.org/10.1080/17512786.2021.1954058>
- Liu, D. (2024). Borderline content and platformised speech governance: Mapping TikTok's moderation controversies in South and Southeast Asia. *Policy & Internet*, 16, 543-566. <https://doi.org/10.1002/poi3.388>
- Miller, K. C., & Lewis, S. C. (2022). Journalists, harassment, and emotional labor: The case of women in on-air roles at US local television stations. *Journalism*, 23(1), 79-97. <https://doi.org/10.1177/1464884919899016>
- Nieborg, D. B., & Poell, T. (2018). The platformization of cultural production: Theorizing the contingent cultural commodity. *New Media & Society*, 20 (11), 4275-4292. <https://doi.org/10.1177/1461444818769694>
- Pantti, M., & Wahl-Jorgensen, K. (2021). Journalism and emotional work. *Journalism Studies*, 22(12), 1567-1573. <https://doi.org/10.1080/1461670X.2021.1977168>
- Papathanassopoulos, S., & Giannouli, I. (2025). Political Communication in the Age of Platforms. *Encyclopedia*, 5(2), 77. <https://doi.org/10.3390/encyclopedia5020077>
- Poell, T., Nieborg, D., & van Dijck, J. (2019). Platformisation. *Internet Policy Review*, 8(4). <https://doi.org/10.14763/2019.4.1425>
- Schneider, P., & Stark, B. (2025). Ensuring news quality in platformized news ecosystems: Shortcomings and recommendations for an epistemic governance. *Media & Communication*, 13. <https://doi.org/10.17645/mac.10042>
- Steensen, S., Kiberg, H., Kalsnes, B., Olsen, G. R., & Kavtaradze, L. (2026) Flattening the and news: Platformisation and the erosion of topical diversity across news outlet types. *New Media & Society*, 0(0). <https://doi.org/10.1177/14614448261430018>
- UNESCO (2025). Tipping point: The chilling escalation of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public sphere. <https://www.unesco.org/en/articles/global-survey-reveals-rising-violence-against-women-journalists>
- van Dijck, J., & Poell, T. (2013). Understanding social media logic. *Media and Communication*, 1 (1), 2-14. <https://doi.org/10.12924/mac2013.01010002>
- van Dijck, J., Poell, T., & de Waal, M. (2018). *The Platform Society: Public Values in a Connective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hbey, J. P. (2024). Bridging the news and social media divide: An emerging imperative for democra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715 (1), 115-136. <https://doi.org/10.1177/00027162251370901>
- Yang, T., Yang, X., Peng, Y., & Mukerjee, S. (2025). Are partisan, unreliable, digital-born, and mass-oriented media more likely to thrive on social media? Comparing four information ecosystem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ume 75 (6), 423-436. <https://doi.org/10.1093/joc/jqaf035>

Political Reporters' Emotional Labor in Platformized Political Communication

Chunsik Kim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uhyun Hong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 Advertising, Kookm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pressures and forms of emotional labor shaping political journalism practice in the platformized political communication environment, as well as their implications for political news production and the democratic functions of journalism. To this end,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political reporters who covered major national election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reveal that political journalism is practiced under overlapping conditions of platform responsiveness, external pressure from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internal organizational gatekeeping, and the need to maintain relationships with news sources. Under these conditions, journalists performed emotional labor by suppressing and regulating their emotions to manage professional relationships. This labor emerged as a core mechanism for upholding professional norms such as objectivity, fairness, and balance. However, this emotional labor also carried the potential to constrain the democratic functions of political journalism through adjustments in reporting intensity, self-censorship, and relational bia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blems of political journalism in the platformized political communication environment should be understood not simply in terms of technological shifts or increased labor intensity, but rather as a structure of journalistic practice in which structural pressures, emotional labor, professional norms, and democratic functions intersect.

Keywords: platformization of political communication, political journalism practice, emotional labor, professional norms, democratic functions of journalism, thematic analysis

[부록 A] 인터뷰 참여자 특성

인터뷰 ID	매체 유형	기자 경력	정치 담당	담당 출입처	직위 (역할)	취재 선거
J01	방송	9년	3년	여당, 야당	말진	대선
J02	신문	12년	3년	야당	중간 팀장	대선
J03	신문	8년	8년	여당·야당	말진, 차장	대선, 지방선거, 총선
J04	방송	30년	15년	여당, 야당	말진, 반장, 데스크	대선, 총선
J05	방송	30년	2년 7개월	야당	말진, 데스크	총선
J06	신문	12년	4년 4개월	여당, 야당	말진	대선
J07	신문	12년	7년	청와대, 여당, 야당	말진, 팀장	대선, 총선
J08	방송	13년	15개월	여당, 야당	말진	대선
J09	신문	13년	10년	청와대, 여당	말진, 팀장	대선
J10	방송	8년	1년 10개월	여당·야당	부반장	대선

[부록 B] 최종코드북

범주	2차 범주	정의	연구 문제	
구조적	플랫폼 성과지표 및 가시성 압력	조회수, 노출, 클릭, 반응, 온라인 기사 출고량 등 플랫폼 성과가 기사 생산과 기자 인식에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1	
	댓글·악플·온라인 반응 압력	댓글, 악플, 이메일, 온라인 공격, 과표찍기, 독자 반응이 기자에게 정서적·실무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1,2	
	정당 및 지지자에 의한 외부 압력	정당, 정치인, 보좌진, 지지자, 당직자 등이 기사 내용·논조·질문 방식에 직간접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1,3	
	생산	조직 내부의 테스크·논조·위계 압력	반장·부장·국장·데스크 등 조직 내부 위계와 논조가 기사 방향, 톤, 선택, 수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2
		역할·직위에 따른 취재 구조 차이	말진, 반장, 부반장, 팀장, 데스크 등 역할에 따라 취재 방식·접근성·감정노동이 달라지는 경우	1,2
		정치경제적/회사이익 압력	회사의 수익, 광고, 예산, 행사, 지역 이익, 정부·정권과의 관계가 기사 생산과 취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3
압력	인맥·꾸미 기반 접근 구조	꾸미, 이너서클, 기자단 평판, 집단 취재, 네트워크 진입 여부가 취재 가능성과 정보 접근을 좌우하는 경우	1,2	
	감정노동	취재원에 대한 감정 억제와 관계 유지	싫거나 불편한 취재원에게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공손함·일상적 소통을 유지하는 경우	2
감정 억제·거리두기 전략		감정 개입을 줄이기 위해 무미건조하게 대응하거나 질문을 줄이는 등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경우	2	
수행		객관성·공정성 수행을 위한 자기조절	객관성·중립성·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 표현, 기사 수위, 형식 등을 조절하는 경우	2, 3
		외부 공격에 대한 정서적 완충과 위축 관리	항의, 비난, 실명 공격, 패싱, 냉대에 대해 즉각 충돌하지 않고 감정을 흡수·완충하는 경우	2, 3
방식		동료·조직을 통한 감정 완충 전략	동료 기자, 반장, 팀장, 꾸미, 회식,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와 감정을 풀거나 흡수하는 경우	2
		관계 유지형 감정노동	정보 접근과 지속적 취재를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서적 노동으로 나타나는 경우	2
	네트워크 진입형 감정노동	꾸미·이너서클·취재망에 들어가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친밀성, 호칭, 술자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2	
기사	장기 출입에 따른 체화된 감정노동	초기에는 스트레스였으나 장기 출입을 통해 자동화·습관화되어 더 이상 '힘듦'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2	
	관계 편향에 따른 기사 생산 왜곡 가능성	취재원과의 친분·비호감·관계 지속 필요성 때문에 기사 수위, 질문량, 프레임, 해명 반영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	2,3	
	기사 생산 방식의 방어적 조정	항의·논란·관계 훼손을 피하기 위해 기사 형식, 톤, 자막, 아이템 배치 등을 방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생산과	자기검열 및 위축 효과	비판 기사, 발제, 제목, 문체 제기 등을 스스로 접거나 약화하는 경우	3	
	민주주의 기능과 회사이익의 충돌	감시·비판 기능과 회사의 수익, 지역 이해, 정권 관계, 조직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3	
민주주의적	보도 효능감과 직업적 성취의 재정의	정치 기사를 통해 변화가 생기거나, 취재원이 기사를 인정하거나, 정책·국감·단독 보도가 영향력을 가질 때 느끼는 보람	3	
	직업 정체성과 권위 약화 인식	정치부 기자가 스스로를 전문가라기보다 워딩 조립자, 직업인, 서비스직처럼 느끼거나, 매개 권위 약화를 인식하는 경우	2,3	
	워딩 기사 중심 구조에 대한 무력감	정치인의 말·워딩을 따라가는 기사 중심 구조 때문에 의미 있는 저널리즘을 하고 있다는 감각이 약화되는 경우	3	
함의	플랫폼 편집 개입으로 인한 의미 왜곡	온라인 제목, 썸네일, 편집 방식이 기사 원문과 다른 의미를 만들고 그 결과를 기자가 감당하는 경우	1,3	
	댓글을 통한 자기검열	댓글과 독자 반응을 단순 공격으로만 보지 않고, 자신이 놓친 문제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2,3	

[부록 C] 정치부 기자 심층인터뷰 질문지

1. 인터뷰 개요

이 인터뷰의 목적은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정치저널리즘 실천에 작용하는 구조적 압력과 기자들의 감정노동 수행 양상,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치뉴스 생산과 민주주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2. 도입 질문

- ① 현재 소속 언론사와 담당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② 정치부 기자로 일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그동안 취재에 참여한 주요 선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③ 가장 최근에 취재한 선거에서 담당하신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3. 본 질문

A.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인식

- ① 선생님께서는 과거와 비교해 오늘날의 정치 보도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② 기사의 가시성, 확산성, 독자의 주의 확보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 ③ 특히 유튜브, X, 인스타그램, 포털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정치 보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 뉴스 생산 압력과 조직적 요구

- ① 선거 보도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뉴스 생산 압력은 무엇입니까?
- ② 그와 관련하여 조직 내부에서 수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기준, 규칙, 요구가 있습니까?
- ③ 플랫폼 친화적인 기사나 콘텐츠 형식에 대한 요구가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④ 속도, 조회 수나 반응 지표, 데스크의 요구, 플랫폼용 뉴스 재가공 가운데 특히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⑤ 보도 과정에서 데스크, 편집국, 디지털팀, 영상팀 등과 협의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C. 전문직 규범과 보도 판단

- 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부 기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 ②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 신속성과 같은 규범 가운데 실제 정치 보도에서 특히 더 중시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③ 실제 정치 보도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범들이 어떻게 충돌하거나 조정됩니까?
- ④ 플랫폼 환경이 기자의 보도 판단이나 기사 작성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느끼십니까?
- ⑤ 기사 작성 시 “이 보도가 얼마나 사실에 충실한가”와 “이 보도가 얼마나 반응을 얻을 수 있는가” 사이에서 갈등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D. 감정노동과 정서적 경험

- ① 취재 과정이나 보도 과정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거나 통제해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까? 있다

저널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 뉴스생산관행과 전문직 정체성의 재구성

김선호(한국언론진흥재단)

박아란(고려대)

박진우(건국대)

배진아(국립공주대)

면 어떤 상황입니까?

- ② 독자의 반응이나 악성 댓글, 정치권의 반발 등이 선생님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 ③ 정치 보도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 ④ 실제로는 분노, 피로, 불안, 냉소, 무력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이를 드러내기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 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거나 관리하십니까?

E. 팩트체크와 민주주의 기능

- ① 정치 보도에서 팩트체크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② 취재 과정에서 허위정보, 왜곡된 주장, 근거가 불분명한 정치 메시지를 검증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 ③ 팩트체크 보도나 정정 보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④ 선생님께서는 전통언론의 정치저널리즘이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실제 취재 경험과 연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⑤ 플랫폼 환경에서 그러한 역할이 약화되거나 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F. 기자의 정체성과 인식론적 권위

- ①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 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 ② 오늘날 정치부 기자의 권위나 신뢰가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 ③ 플랫폼 환경에서 기자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요구받는 태도나 능력은 무엇입니까?
- ④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나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십니까?
- ⑤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정치부 기자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4. 마무리 질문

- 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정치저널리즘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혹은 위기는 무엇입니까?
- ② 플랫폼화된 환경에서 정치저널리즘이 민주주의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③ 오늘 인터뷰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꼭 덧붙이고 싶은 경험이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5. 인터뷰 진행 시 참고 사항

이 질문지를 공통 질문 틀로 활용하되, 실제 인터뷰에서는 응답자의 응답과 서사에 따라 질문 순서와 표현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추상적 의견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체적 사례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가장 최근 사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당시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 그 결정에 어떤 감정이 작동했습니까?
- 그 감정을 기사나 대외적 태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조직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 그 경험이 이후 취재 방식이나 기사 작성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토론문]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기자의 전문직 정체성: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 연구는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감정노동 문제를 정치부 기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 생산과 유통의 수직적 결합 구조가 해체되고, 플랫폼이 뉴스 유통의 중심축으로 구조화된 오늘날, 뉴스 유통 권력이 뉴스 생산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스 유통 권력이 미치는 영향은 뉴스 기사의 포맷이나 헤드라인 같은 기사 작성 과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들의 취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는 점, 그리고 ‘감정노동’이라는 현상에 착목하여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 등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언론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대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언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이 연구가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멈추지 않고 학술 논문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논문으로 발전을 위해 원고를 읽으면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문 제목과 이론적 배경에서는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정치부 기자들의 감정노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환경과는 별개로 정치부 기자들과 청와대나 국회 등을 출입하면서 느끼는 긴장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가 제시하고 있는 정치부 기자와 취재원 사이의 긴장 관계, 기사 수위 조절, 자기검열 등은 플랫폼 환경이 조성되기 이전부터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과연 플랫폼 환경이 정치부 기자들과 출입처/취재원 간의 긴장 관계 형성에 어떻게 또는 얼마나 투영되어 있는지 정밀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플랫폼 환경을 강조하려면 포털 뉴스 서비스나 유튜브(생중계)를 통한 뉴스 유통이 온라인 기사 노출 관련 성과 부담뿐만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 기자와 취재원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내용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둘째, ‘감정노동’이 정치부 기자가 출입처나 취재원을 접하면서 겪는 심리적 고충에 적용될 수 있는 적합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감정노동은 실제 느끼는 감정과 무관하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웃음, 친절 등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노동의 형태로서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고객상담센터 직원이나 기내 승무원 등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언론인이 그러한 서비스 직군과 마찬가지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언론인 관련 감정노동을 다루는 기존 연구도 주로 뉴스 소비자들로부터 겪는 ‘괴롭힘’이나 (여성 기자에 대한) 비하 현상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정노동은 내면적 감정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Hochschild가 말하는 ‘심층적 연기’(deep acting) 또는 Goffman이 말하는 ‘연극적 행위’(dramaturgical action)로도 표출되는 것으로서, 언론인 직무 유형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기사 생산과 민주주의 기능’관련 내용은 과거 많은 지적을 받았던 출입처 제도의 문제

점과 잘 연결된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부 기자를 특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면, 정치부 기자들의 취재원을 대상으로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상호 간 관점이나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라면 더욱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지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와 취재원(예를 들어, 국회 보좌진이나 청와대 관계자)의 친분 관계가 기사 작성시 수위 조절이나 자기검열로 이어지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취재원 관점에서는 사적인 친분 관계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기사 생산 또는 언론 길들이기의 실패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언론의 민주주의 기능 수행 실패에 대한 결론이 과도하게 일반화 되어 있는지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발표문은 정치 저널리즘을 구조적 압력과 감정노동의 관점에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다만 개념의 엄밀성, 플랫폼화의 특수성, 자료 해석의 범위, 그리고 결론의 일반화 수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정치부 기자의 감정노동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

정치부는 언론사 내에서도 능력이 뛰어난 기자들이 배치되는 부서이다. 기사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취재 능력이 탁월하고 기사 작성 능력도 검증받은 기자들이 배치되기에 정치부 기자는 언론사 내에서 ‘엘리트 기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정치부 기자와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는 선뜻 연관성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부가 기피 부서가 되고 있으며 젊은 연령대의 기자일수록 정치부에 배치되는 것을 꺼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무엇이 정치부 기자를 선망의 대상에서 기피 직군으로 만들었을까. 이 발표문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10명의 정치부 기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논문은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정치저널리즘이 더 이상 기자 개인의 판단이나 취재 역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취재원의 압력과 온라인 반응으로 구성되는 생산 과정의 압력 및 감정노동의 기본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치부 기자들의 감정노동은 단순한 갑을관계 속의 일방적 굴종이 아니라 취재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전문적 규범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정치부 기자의 감정노동은 기사 생산방식과 자기검열, 언론의 민주주의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정치부 기자의 감정노동은 좋은 기사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극단적 갈등과 파행이 반복되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자들이 정치인과 보좌진, 당직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노동을 감수할 만큼의 취재 과정이 고품질의 정치 분석기사나 탐사보도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타사보다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당의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속보나 특종으로 처리하는 기사, 정당과 정치인의 자극적 발언을 그대로 실는 ‘따옴표 저널리즘’ 기사, 정치인들의 소셜 미디어 발언을 여과 없이 퍼나르는 기사 등을 떠올려볼 때, 정치부 기자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감정노동을 하는 것인지 언론계 내부에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언론계에서는 학계의 비판을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도 알고 있다. 그러나 정치부 기자의 감정노동을 당연한 것 또는 관행적인 것으로 여기고 반복해서 수행한다면 갈수록 젊은 기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기사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정치부 기자의 취재능력이 저하된다면 이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감시와 비판 기능도 저하시킬 것이다. 결국 관행적 감정노동은 시민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치저널리즘에서 감정노동이 만연하게 된 현실은 언론 신뢰의 하락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 언론사들이 정파성을 드러낼수록 정치인과 정당은 자신들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언론사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낸다. 정치인들과 관계자들의 이러한 적대감은 취재현장 일선에 배치된 기자들의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상황과도 직결된다. 그렇기에 사실 보도와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 등과 같은 저널리즘 원칙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확고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으며, 언론사들도 정치 지형에 따라 자신들의 성향을 뚜렷하게 내세우는 것이 과연 언론 신뢰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이기에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단지 평판 저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산업과 저널리즘 전반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기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언론계 내부의 고민과 현실 및 문제의식을 짚어내는 데 강점이 있다. 그러나 언론계 외부에서 전체적 지형을 바라볼 때 드러나는 플랫폼 환경에 종속된 언론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디지털 취재 및 보도 환경에서 지속적 괴롭힘에 노출된 언론인들의 정신건강과 이직 의도,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언론의 관점과 취재방향에 대한 고민과 문제점 등은 후속 연구에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널리즘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고민과 성찰을 수행하는 것도 우리 학계가 짚어야 할 몫이기도 하다.

[토론문]

‘뉴스 생산, 플랫폼화, 감정 노동’이라는 쟁점

박진우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저는 ‘플랫폼화된 정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기자의 전문직 정체성이라는 주제는 새로운 방식의 이론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천착한 이 발표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께서 문제에 한층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토론문은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점, 그리고 저라면 조금 다르게 접근하였을지도 모르는 몇 가지 대목들에 대해 간단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이 발표문을 세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저널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 “뉴스 생산 관행과 전문직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제목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플랫폼화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이 기자들의 뉴스 생산 과정 자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그 다음은 감정 노동이라는 새로운 측면은 어떤 의미에서 기자들의 노동, 나아가 기자들의 전문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의 내용과 형식이 한층 분명해질수록 이 연구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의의를 제가 나름대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뉴스 생산 과정에 적용하면서 향후 플랫폼 중심적 저널리즘 환경에서 변화하는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탐구를 시작하였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화와 플랫폼화의 충격은 이미 충분히 강조되었지만, 그것이 뉴스 유통과 소비의 영역을 재구성하는 것에 쏟아진 관심에 비한다면 뉴스 생산 현장에서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만큼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 생산 과정을 문제삼는다면, 새로운 요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과정에 개입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해 주신 것이 이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미덕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발표문에서 제게 조금 의외였던 대목은 정치 뉴스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압력 구조에 관한 설명에서, 제 예상보다는 ‘플랫폼화’와 직접 관련된 논의가 아직은 충분히 전개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정치 뉴스 생산의 압력 구조에 대한 논의(7쪽 이하)에서 플랫폼화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댓글, 조회 수, 온라인 제목, 독자 피드백 등 플랫폼 반응과 성과지표 압력”(7쪽)일 것입니다. ‘수용자 매트릭스’라고 불리우는, 뉴스룸 내부의 트렌드가 야기하는 뉴스 생산 과정의 압력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서는 2020년대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진척되지는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적된 여타의 요소들은 사실 오랫동안 뉴스 생산 과정에서 작동하는 압력 혹은 편향(bias)의 요소들로 언급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발표문은 현재 뉴스 생산 현장에서 플랫폼화 현상이 끼치는 영향 - 새로운 규범적 기준과 정당화 압력, 그리고 감정 노동의 확산 - 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논의를 진척시키지는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8쪽 이하 “매체 유형별·직위별·출입처별 차이” 논의에서도 플랫폼화의 영향을 충분히 읽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 과정에서 부딪혔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들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널리즘과 뉴스 생산 연구에서 종사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수행하게 된 감정 노동의 양상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기자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심으로 저널리즘 현장에서 제기되는 감정 노동의 여러 양상들에 대한 연구들이 적지 않습니다(저 역시도 감정 노동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기자들에 대한 괴롭힘’ 이슈로 축소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서는 저자께서 핵심적으로 감정 노동이 오늘날의 뉴스 생산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지를 여쭙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 노동의 수행 방식”에 대한 논의(8쪽)를 살펴보면, 그것이 뉴스 생산(기사 작성)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정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사 표현과 감정 개입 수준을 조절하는 일을 포함하여, 일체의 취재원과의 관계 유지는 사실 기자 직종의 직업 활동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로 직업 활동의 목적은 아닙니다(‘감정 노동’ 개념 자체부터 감정적 대응과 관리가 해당 직종의 본래 임무이자 목적으로 전환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처음 이론화되었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저는 발표문이 지적한 ‘취재원과의 관계, 기사 표현과 감정 개입의 수준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 등은 직종 자체에 내재된 직무 조건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무 조건이 뉴스 생산 과정에 개입하는 하나의 상수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설계가 비록 무척 어렵지만 지금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 과정에서 예컨대 기자들의 취재원과의 관계 등이 플랫폼화된 환경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중요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사례 등이 언급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를 한국의 기자들은 아직 자신들의 감정 노동이 직무 그 자체의 본질을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쭙고자 합니다. 또, “정치부 기자들이 감정노동을 예외적 부담이 아니라 직업의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표현처럼, 정치부 기자라는 조건이 여타의 부서보다 훨씬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이 모든 질문들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플랫폼화된 저널리즘 환경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약해 보건대 제가 드린 질문은 결국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귀중한 데이터들(인터뷰, 설문 등)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읽어내야 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더불어 저는 지금 저자께서 다루고 계신 질문의 내용은 어쩌면 응답하는 기자들도 명확히 의식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큰 영역일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결코 쉽지 않은 쟁점들을 선구적으로 질문해주시고 직접 결론을 제시해 주신 노고를 감당해 주신 것 같습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문이 저자 선생님들의 연구를 한 걸음 더 진척시켜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기자의 전문직 정체성: 감정노동을 중심으로

배진아 (국립공주대학교 영상학과)

이 발표문은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압력과 감정노동의 양상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탐색하고, 이것이 정치뉴스 생산과 민주주의 기능에 미치는 함의를 구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이다. 플랫폼화가 저널리즘 실천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자들의 내면적 경험과 감정적 자기조절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자들의 내면적 경험(감정 노동)에서 출발하여 정치저널리즘의 민주주의적 기능이라는 거시적 문제에 답하고자 하는 연구의 시도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부 기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통해 생산 압력, 감정노동 수행 방식, 그리고 기사 생산과 민주주의 기능에 대한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점, 그리고 매체 유형, 직위, 출입처에 따라 감정노동의 형태가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세밀하게 포착한 것은 연구의 중요한 성과이다. 감정노동이 단순히 기자 개인의 심리적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사 생산 방식과 민주주의적 역할 수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실증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에서는 연구의 주요 성과에 대한 언급보다는, 이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논의가 더욱 다양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1. 핵심 개념에 대한 질문

1)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

이 연구에서 '플랫폼화된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정치정보의 유통과 시민의 정치 참여 방식이 플랫폼의 기술적 구조, 알고리즘, 수익 논리에 의해 규정되는 환경으로 정의된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특징은, 언론이 정치정보의 가시성과 공적 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인, 정당, 인플루언서, 유튜버와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독자로서 이러한 경쟁 구도가 기자들의 취재 및 기사 작성 관행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기대했지만, 실제 연구결과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유튜버나 정치인의 SNS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들이 먼저 보도(언급)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언론인으로서 자신들을 이들과 어떻게 구별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과거 레거시 미디어 환경과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플랫폼화의 핵심 특징이기도 한 만큼, 관련해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2) '감정노동' 개념의 정의와 범위

이 연구에서 감정노동은 세 층위로 정의된다. 첫째, Hochschild(1983)의 원래 개념에 따라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 표현 규칙에 맞추어 감정을 유발·억제·관리하는 노동'으로 정의된다.

둘째, 이를 저널리즘에 적용하여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보도 가치와 전문직 규범에 부합하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는 직업적 자기관리 실천'으로 확장된다. 셋째, 플랫폼화 환경을 반영하여 '적대적 댓글, 온라인 괴롭힘, 정치적 공격의 피로 속에서도 신뢰할 만한 저널리즘 주체로 보이기 위해 감정의 표현과 억제를 관리하는 실천'으로 재정의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의는 비교적 명확하다. 그런데 세 번째 정의는 연구에서 실제로 다루는 감정노동의 범위보다 훨씬 좁다. 연구에서는 적대적 댓글과 온라인 공격 대응뿐 아니라 알고리즘 압박, 플랫폼별 재가공, 속도 경쟁 등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부담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화된 환경에서의 감정노동이 기존의 그것과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지, 그리고 플랫폼화가 기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감정 표현 규칙을 요구하게 되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감정노동은 본래 감정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실천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감정 조절과는 성격이 다른 실천들도 감정노동으로 포괄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논문의 '기사 생산과 민주주의 기능에 대한 함의' 부분에서, 지역신문 기자의 "정부 여당에서 옳다구나 하고 예산 삭감할 거 같으면, 그 기사 못 쓰죠"(J09)라는 발언이 감정노동이 낳은 자기검열의 결과로 서술된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의 억제·조절이라기보다 지역 정치, 정부 예산, 언론사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적·인지적 판단에 가깝다. 감정노동과 자기검열, 구조적 순응, 관계 관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들을 모두 감정노동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시킬 때 오히려 각각의 개념이 가진 고유한 설명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감정노동, 자기검열, 구조적 순응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3) 플랫폼화는 '감정노동'을 변화시켰는가, '뉴스 생산 관행'을 변화시켰는가?

플랫폼화가 기자들에게 가져온 변화, 즉 알고리즘을 의식한 기사 제목 변경, 플랫폼별 뉴스 재가공, 속도 경쟁 등은 주로 뉴스 생산 관행의 변화이다. 이것이 기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감정노동의 변화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온라인 편집자가 기사 제목을 플랫폼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은 뉴스 생산 관행의 변화이고, 그로 인해 기사가 취재원의 항의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감정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이 둘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서술되는 경우가 있다. Hochschild의 개념에 따르면, 플랫폼화가 감정노동에 변화를 주었다고 주장하려면 플랫폼화가 기자들에게 새로운 감정 표현 규칙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뉴스 생산 관행의 변화와 감정노동의 변화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될 때, 플랫폼화가 기자들의 감정노동에 어떤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영향을 미쳤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한편, 발표문에서 플랫폼화에 따른 감정노동의 변화로 지적된 것들 중 일부는 플랫폼화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취재원 관계 관리, 데스크 압력, 조직 위계에 따른 감정 조절 등은 레거시 미디어 환경에서도 정치부 기자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해온 감정노동이다. 물론 논문 곳곳에서 플랫폼화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감정노동의 사례들도 발견된다. 실시간 악플과 온라인 공격에 대응하면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 지지자 집단의 조직적 공격을 감당하면서도 취재를 이어가야 하는 것, 온라인 편집으로 기사 의미가 바뀌었을 때 그 항의를 기자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발표문에서 이것들이 '플랫폼화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감정노동'으로 명시적으로 범주화되어 제시되지는 않는다. 기존에 존재했던 감정

노동과 플랫폼화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감정노동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면,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이 한층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감정노동과 정동적 역량, 전문직 규범

이론적 논의에서 소개된 '정동적 인식론(affective epistemology)' 개념은 매우 흥미롭다. 토론자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감정노동이 외부의 요구에 맞추어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실천(관리 대상으로서의 감정)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정동적 역량은 감정과 정동을 기자의 판단과 인식론적 권위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자원으로 보는 관점이다. 싫은 취재원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억울해도 참는 것이 감정노동이라면, 현장에서 몸으로 감지하는 직관이나 언어화되기 이전의 감각적 판단이 기자의 신뢰와 권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정동적 역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념이 이 연구에서 어떻게 구분되며, 정동적 역량이 실제 인터뷰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포착되고 있는지 발표자의 설명을 듣고 싶다. 정동적 역량이 작동하는 장면은 인터뷰보다 현장 관찰을 통해 더 잘 포착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후속 연구에서 뉴스룸 참여 관찰과 같은 방법론을 병행한다면 이 개념의 잠재력을 더욱 풍부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감정노동이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과 같은 전문직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연구결과에서 실제로 포착된 것은 주로 균형성의 형식적 수행, 즉 여야 발언 시간 맞추기, 아이템 수 조정, 옷 색깔 조심하기 등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 사실 이 세 개념은 각기 다른 함의를 담고 있다. 객관성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의 문제이고, 공정성은 다양한 입장을 고르게 반영하는 문제이며, 균형성은 대립하는 측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이다. 세 규범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다루다 보니 각각의 고유한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플랫폼화된 환경에서 이 규범들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기자들이 각 규범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연구의 깊이가 한층 더해질 것이다.

3. 정치저널리즘 감정노동의 특수성

발표문을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떠오른 질문이 있다. 기자들이 경험하는 감정노동이 과연 정치부 기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인가? 취재원과 관계 관리, 데스크 압력, 조직 위계에 따른 감정 조절은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기자들도 유사하게 경험하고 있다. 정치저널리즘의 감정노동이 일반 저널리즘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면, 그 차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정치부 기자에게만 나타나는 고유한 특수성, 예컨대 취재원이 곧 권력자라는 점, 지지자 집단의 조직적 공격, 그리고 정치적 관여도가 높은 독자들에게 의한 지속적인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더 풍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토론자는 과거 정치부 참여관찰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치부 기자들이 겪는 감정노동의 독특한 양상을 직접 목격한 바 있다. 특히 정치부 여성 기자들에게 가해지는 성차별적·혐오적 악성 댓글은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기자들은 이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 발표문도 온라인 괴롭힘과 적대적 피드백을 중요한 압력 요인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기자들에게 남기는 심리적 상처와 치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다. 악성 댓글에 눈감고 외면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감정노동이라 할 때, 그 감정노동이 기자들에게 어떤 심리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저널리즘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4. 저널리즘 현장에 주는 함의와 실천적 제안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감정노동이 단순히 기자 개인의 정서적 부담이 아니라 정치 저널리즘의 민주주의적 기능 수행 조건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이다. 감정노동이 기사 수위 조절, 자기검열, 관계 편향을 매개함으로써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적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진단은 저널리즘 현장에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몇 가지 실천적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언론사 차원에서 기자들의 감정노동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적 과제로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동료와의 비공식적 대화나 단톡방 공유 같은 개인적인 방식이 주된 감정 완충 수단이라면, 이를 보다 공식화하고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한국기자협회와 같은 언론 관련 기관들이 언론인 연수와 복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자들의 감정노동과 심리적 부담에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공적 기관들이 감정노동 지원을 언론인 복지의 주요 과제로 삼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 괴롭힘과 혐오적 댓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적·심리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성 기자에 대한 성차별적 공격을 기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인내해야 한다면, 그 상처는 내면화되어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개별 언론사에만 맡겨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언론사 중 일부는 제한적이거나 자체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대다수의 영세 언론사는 그러한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와 건강한 공론장 형성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공적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뉴스룸 안에 깊숙이 자리잡은 플랫폼 논리와 저널리즘 규범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자들이 알고리즘과 성과지표의 압박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조직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고 대응하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감정노동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개별 언론사의 조직 문화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정치뉴스의 노출과 확산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저널리즘 규범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언론 유통 생태계 전반의 정확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포털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뉴스 유통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규범적 개입 없이는, 기자들의 감정노동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보여준 역설적 사실 하나를 강조하고 싶다. 플랫폼화된 환경이 정치 저널리즘의 자율성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저널리즘의 필요성과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정책이 바뀌는 순간에 기자들이 느끼는 강한 효능감은, 아무리 구조적 압력이 거세도 정치저널리즘의 민주주의적 기능이 포기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 연구는 그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직시하면서, 정치저널리즘을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기자들이 그 변화를 내면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연구자와 현장 모두에 중요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 주신 김춘식, 홍주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